

불붙은 치킨버거 경쟁 인플레이 여파



▲ '칙필레' 치킨 샌드위치, 사진=chick-fil-a.com

치솟는 물가 덕에 소고기보다는 싸고, 맛을 다양하게 변주할 수 있는 치킨샌드위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2일 '매일경제'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파네라 브레드는 시그니처 테이크 치킨 샌드위치, 스파이시 테이크 치킨샌드위치 등을 '셰프 메뉴'로 주력 배치했고, 웬디스와 파파이스, 버거킹, KFC등도 치킨 샌드위치 광고를 늘렸다. 치킨 샌드위치는 햄버거 빵 사이에 튀긴 치킨을 넣은 것으로, 사실상 버거다.

지난 5월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를 메뉴에 추가한 파파이스 새미 시디퀴 대표는 "치킨 샌드위치는 지금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염두에 두는 화두"라고 평했다.

계육 공급 업체들은 닭고기 소비가 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 올 초 파운드 당 2.1달러 수준이었던 계육 가격이 7월 2.8달러 선까지 33% 이상 올랐는데도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준 덕을 봤다. 미국 2위 계육업체 필그립은 올해 반기에 6억 4,300만 달러의 이익을 냈고, 주가 역시 지난 1년간 40% 넘게 올랐다.

모든 치킨샌드위치가 인기를 끄는 것은 아니다. 스타벅스와 버거킹이 내놨던 치킨샌드위치는 시장의 흑평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치킨샌드위치 붐을 업계 1위인 프랜차이즈 '칙필레'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치킨 샌드위치가 주력 메뉴인 칙필레는 스타벅스, 던킨, 타코벨, 맥도날드 등을 제치고 8년 연속 미국 소비자만족도지수(ACSI)가 선정한 가장 인기있는 패스트푸드 체인 1위에 올랐다.

고물가에 저축은 줄고, 값을 카드값 늘고

미국인들이 40여년 만의 최악의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카드빚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CNN비즈니스는 전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자료를 인용해 올해 2분기(4~6월) 미국의 가계부채가 16조1,5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가계부채가 16조 달러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 연은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70억 달러 급증하고 자동차 대출 등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채 잔액은 지난 분기에만 460억 달러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9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신용카드 잔액은 연체 시 다른 대출에 비해 높은 금



리가 높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대출 금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 재정에 위협 신호일 수 있다고 CNN비즈니스는 지적했다.

노동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6월의 개인 저축률은 5.1%까지 떨어지면서 2009년 8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 여유자금이 부족해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뉴욕 연은은 일부 저소득 지역에서 카드빚과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이 강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지난 분기 부채 상황을 큰 문제 없이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사진=shutterstock

유권자 첫 심판대 오른 낙태권, 옹호 진영 승리

캔자스주 유권자가 주 헌법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려는 헌법 개정안에 퇴짜를 놓았다.

3일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캔자스주는 전날 예비선거 투표 때 유권자에게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주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두고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약 90% 개표 시점에서 39%가 개헌에 찬성하고 61%가 반대해 조항 삭제가 무산됐다.

당초 정치학자 다수는 통상 공화당이 민주당이나 무당층보다 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개헌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캔자스는 2019년 주 대법원이 낙태권이 주 헌법의 보



▲ 지난 2일 캔자스주 예비선거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서 부결된 이후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sent-trib.com

호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다. 이에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주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오클라호마, 미주리 등에 사는 많은 여성이 원정 시위를 위해 캔자스를 찾았다.

이번 투표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유권자가 주 차원의 투표로 낙태권에 대해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올가을에는 켈터키, 켈

리포니아, 버몬트 등 주에서도 이런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낙태권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민주당에 희망적인 결과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날말퍼즐 정답

1도	청	2뿔	덜	3미		
리		조		4소	5유	권
도		6한	사	7군		통
8리	9본			10살	코	기
	11방	랑	12자		13한	14눈
	사		15네	16티	즌	엣
17필	수	18품		머		가
	19바	구	니		20응	시

1432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1에 있습니다)

5		1					4
9		3	1	8		5	2
	3			2	6	8	7
		9	7	4			2
6	2					3	
	1				5		3
		5	9		1		
2			4			1	